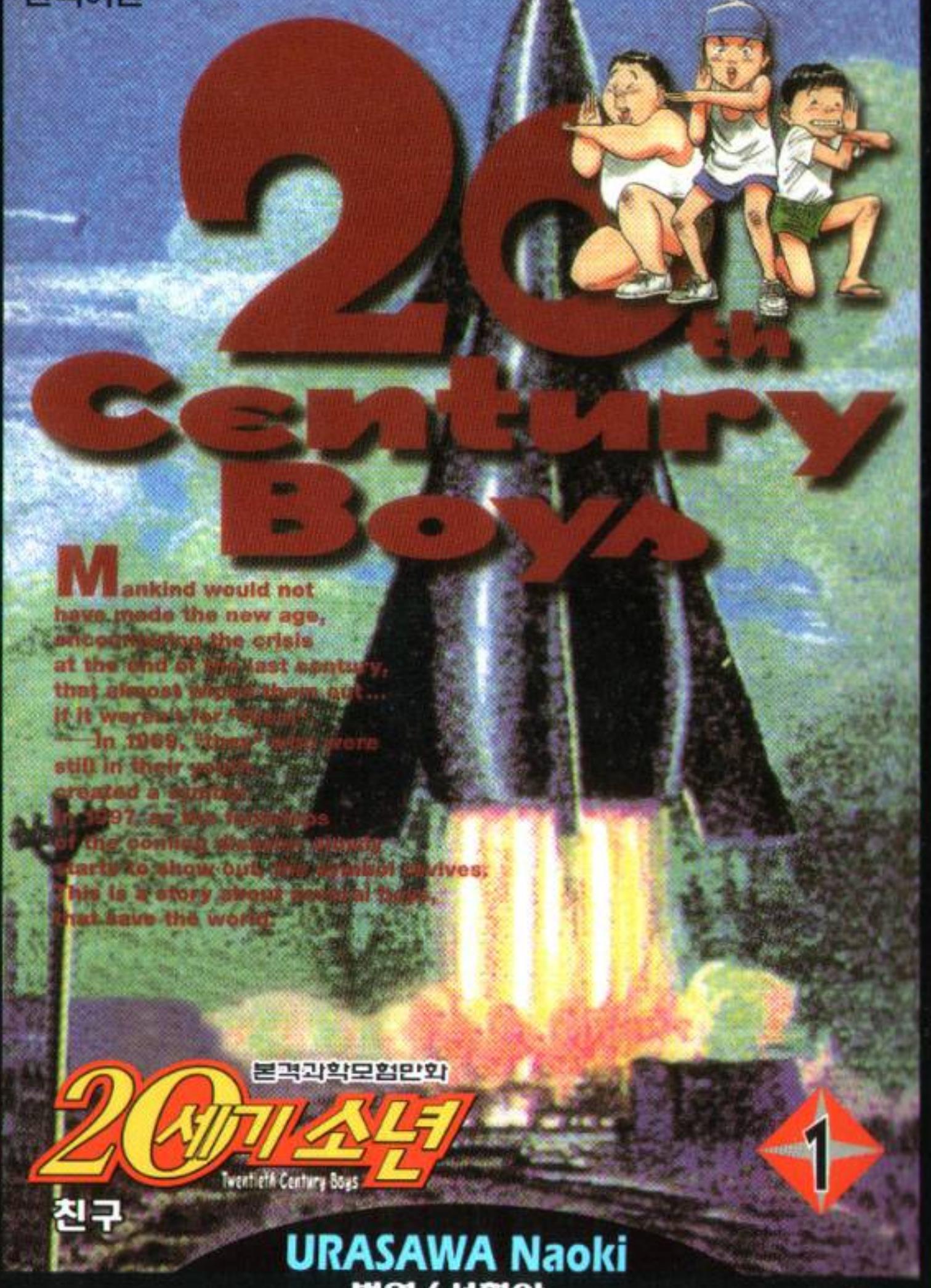


한국어판

20th Century Boys



Mankind would not have made the new age, encountering the crisis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that almost wiped them out... if it weren't for "them".
— In 1969, "they" were still in their youth, created a summer.
In 1997, as the feelings of the coming disaster already starts to show out, they symbol survives.
This is a story about several boys, that save the world.

본격과학모험만화

20세기소년
Twentieth Century Boys

친구

URASAWA Naoki

번역 / 서현아

1



본격과학모험만화

20세기소년

Twentieth Century Boys

친구

URASAWA Naoki

번역 / 서현아

Mankind would not have made the new age,
encountering the crisis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that almost wiped them out... if it weren't for "them".
In 1969, "they" who were still in their youth, created a symbol.
In 1997, as the footsteps of the coming disaster slowly
starts to show out, the symbol revives.
This is a story about several boys, that save the world.

● 이 인물이 어느 시대의 누구인지도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소녀



마루오

● 켄지의 친구. 동네에서 펜시숍을 경영하는, 지금도 친한 친구다.



킨나

● 형빙불명된 켄지의 누나가 두고 간 아이. 켄지가 키우고 있다.



동키

● 소년 시절에는 켄지의 친구. 어른이 되어 공업고교 교사가 되지만...

20th Century Boys



유키지

● 어린 시절, 같은 반 최강이던 여자. 세관 직원이 되어 마약 탐지견과 함께 공항에서 근무.



오쵸

● 박식한 소년으로 친구들 중에서 리더격. 어른이 된 후에는 멀어졌다.

친구

● 세기말, 뭔가를 꾸미고 있는 의문의 사나이. 소년들의 마크를 알고 있는 그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 중 누군가가 아닐까?



켄지

● 이 작품의 주인공. 희망에 찬 미래를 꿈꾸며 소년시대를 보내다가 훗날 편의점 주인이 된다.



요시즈네

● 소년시대의 친구. 어른이 되어서도 켄지와 친교가 있다. 마음이 약하다.



케로용

● 그 별명은 얼굴에서 온 것인가? 켄지와 같은 동네에서 살며 '97년에 결혼.



안보·마보

● 사심 최악의 쌍둥이. 그 성격은 냉혹하면서도 잔인. 그것도 2인분이다.



몽

● 친구 중 한사람. 일 때문에 해외에 부임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귀국한다.



등장소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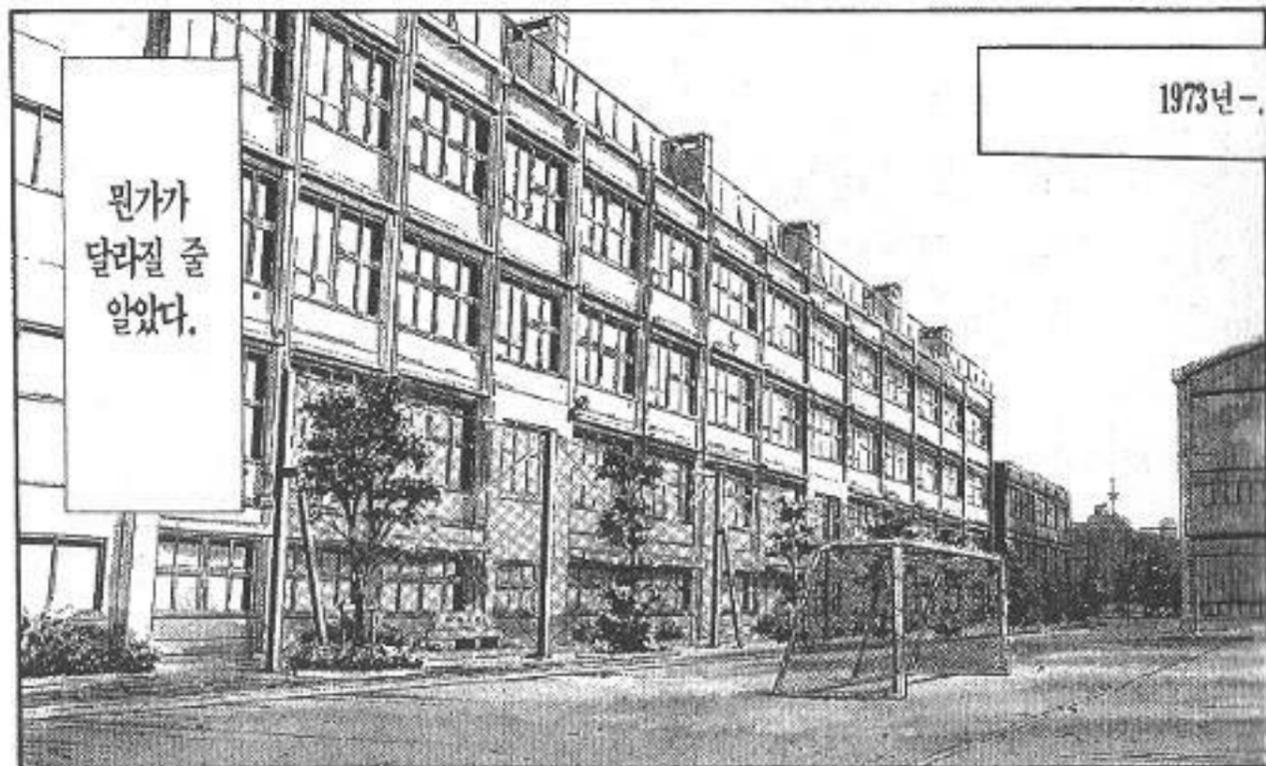
20th Century Boys Profile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소년시대의 질긴 끈으로 맺어진 그들이다. 소년, 그리고 어른으로서 시대를 뛰어넘어 활약하는 그들의 인물상을 소개한다.

▲오시즈네의 소년시대

▲켄지의 소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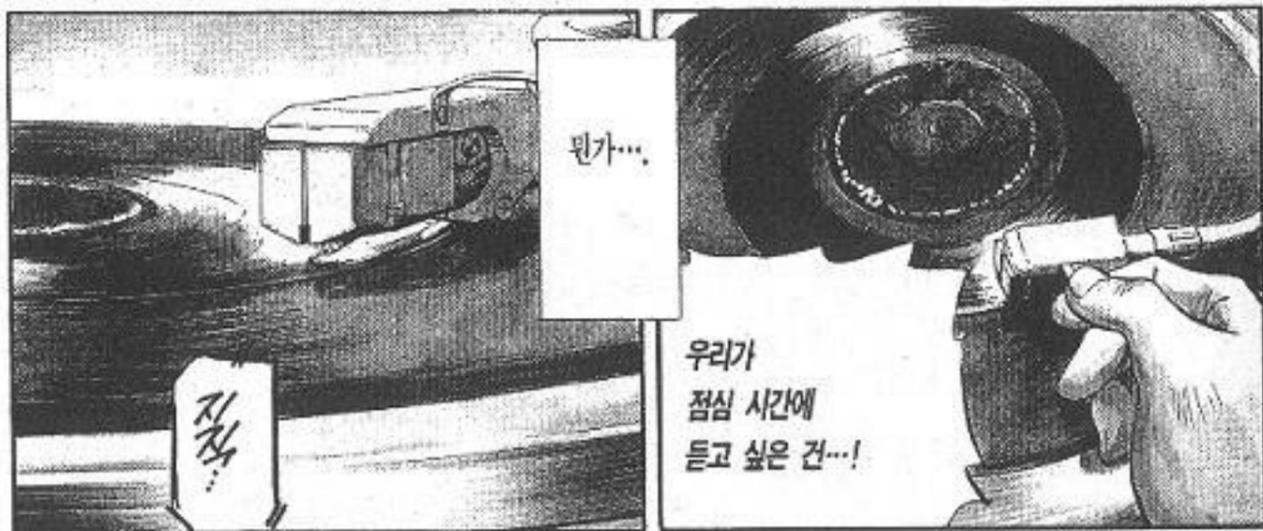
▲몽의 소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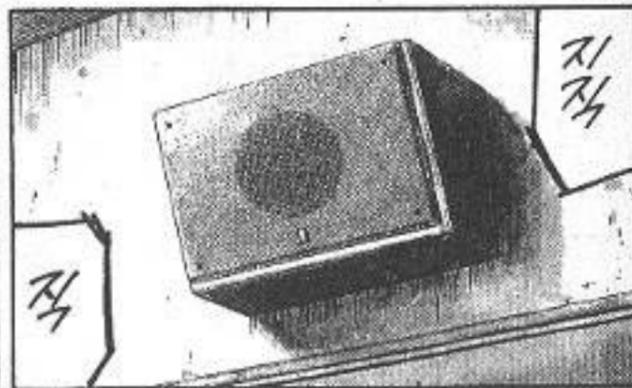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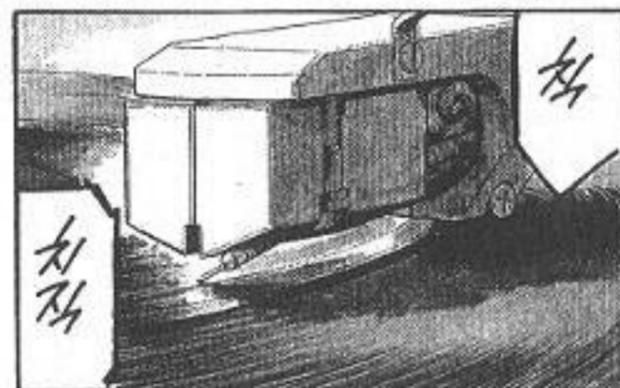
20th Century Boys

NAOKI URASAWA PRES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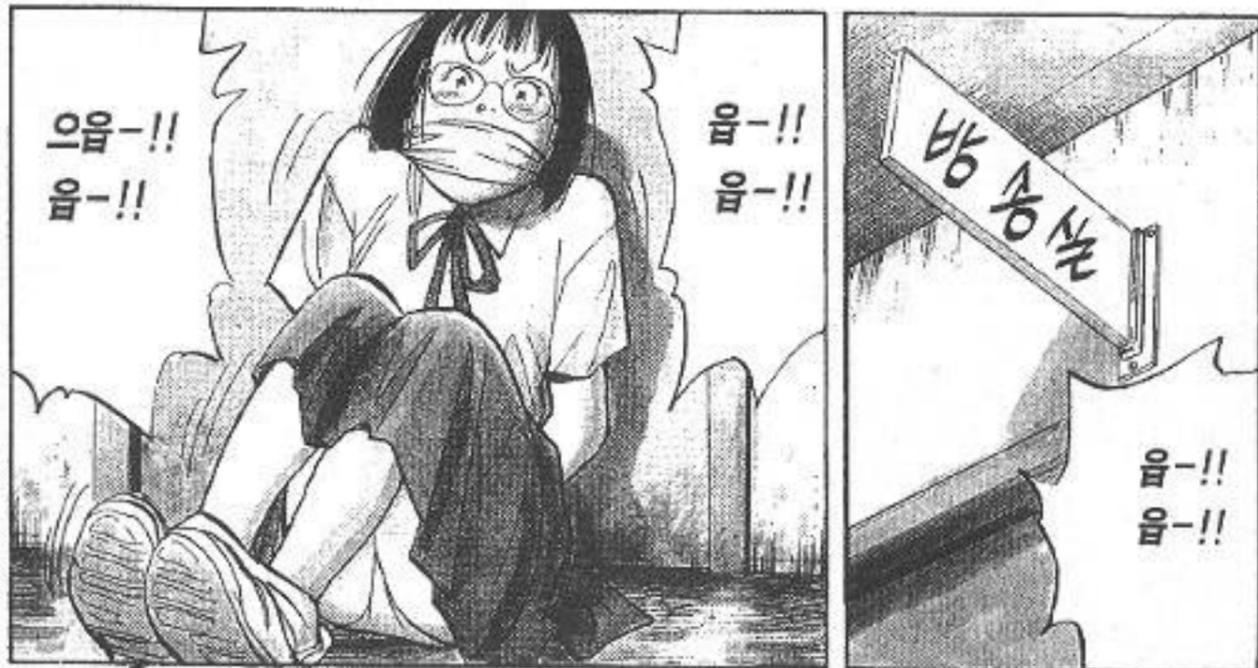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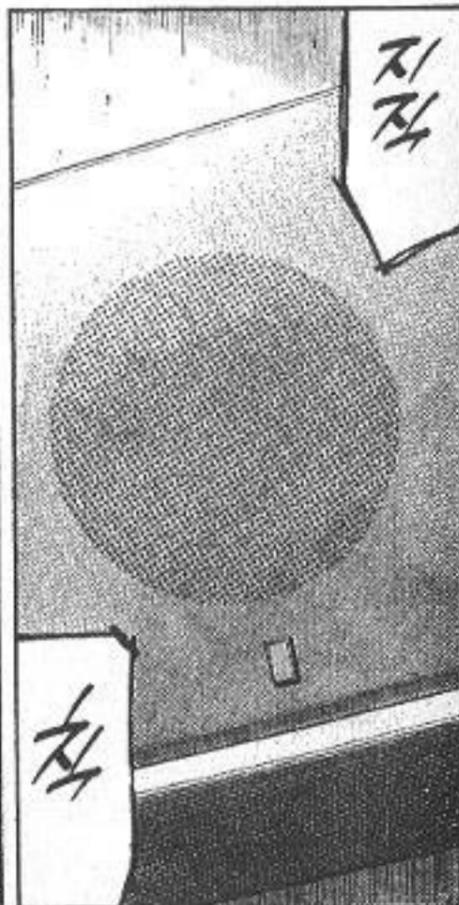
- 목차
- 제1화 친구 7
- 제2화 가라오케 41
- 제3화 기타를 산 소년 61
- 제4화 쿼터폴이 수건 81
- 제5화 과학실의 밤 99
- 제6화 달에 꽃은 깃발 117
- 제7화 소프트 볼 135
- 제8화 구멍을 파다 153
- 제9화 메시지 172
- 제10화 유키지 193



우리가
점심 시간에
듣고 싶은 건...!



이
공
이
야
!!



점심 시간이란
말야,
자유의 시간이야!

제4중학교에
처음으로
로큰롤이
올려져졌다.



제1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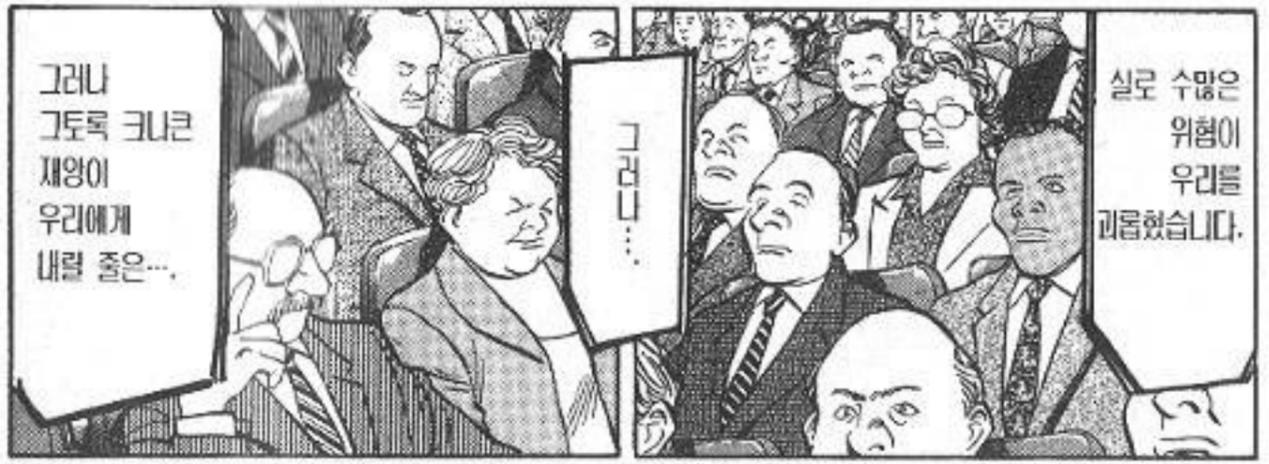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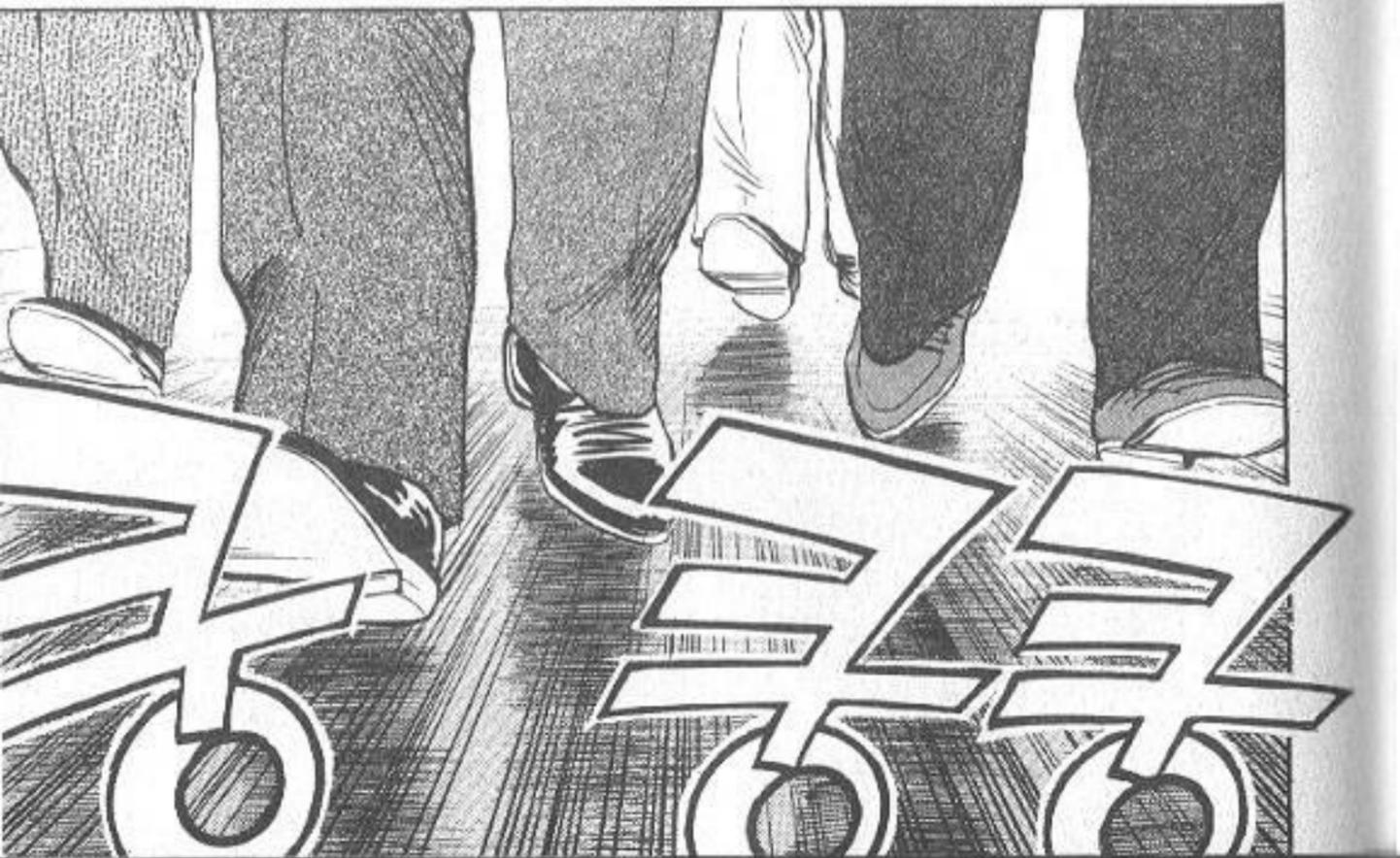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우리 인류를 구한
 그들에게
 우렁찬 박수를!!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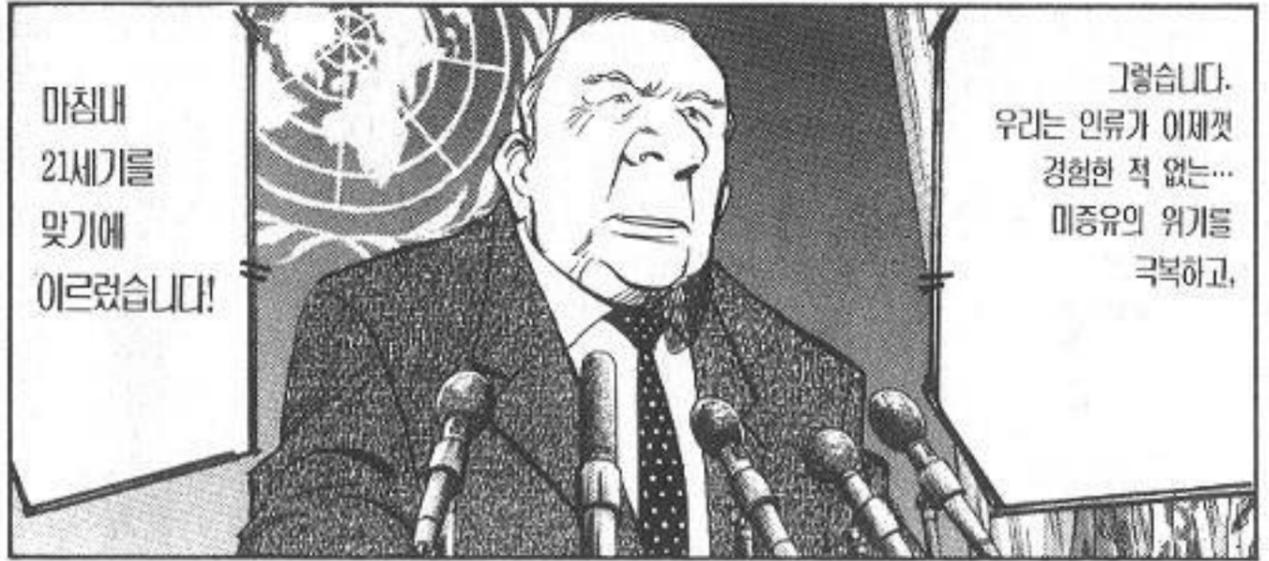
짹 짹
 짹 짹 짹
 짹 짹 짹



그러나
 그토록 크나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릴 줄은...

그런데...

실로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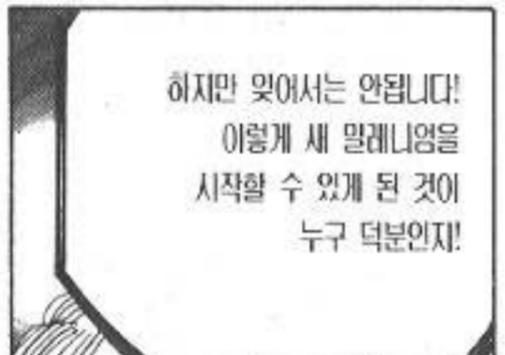


마침내
 21세기를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난 세기에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맞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새 말레니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죠!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밤중에 놀라
떨 때가
있습니다...



설마...



설마...



좌악



또...
그 땅울림이...



또...
그 땅울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1997년 -

응애, 응애,
응애애...!

이애애애애!!

酒



설마,
또 그게...!!



응애애애애!!



"아프리카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 이란다.

휘~
갑나는
세상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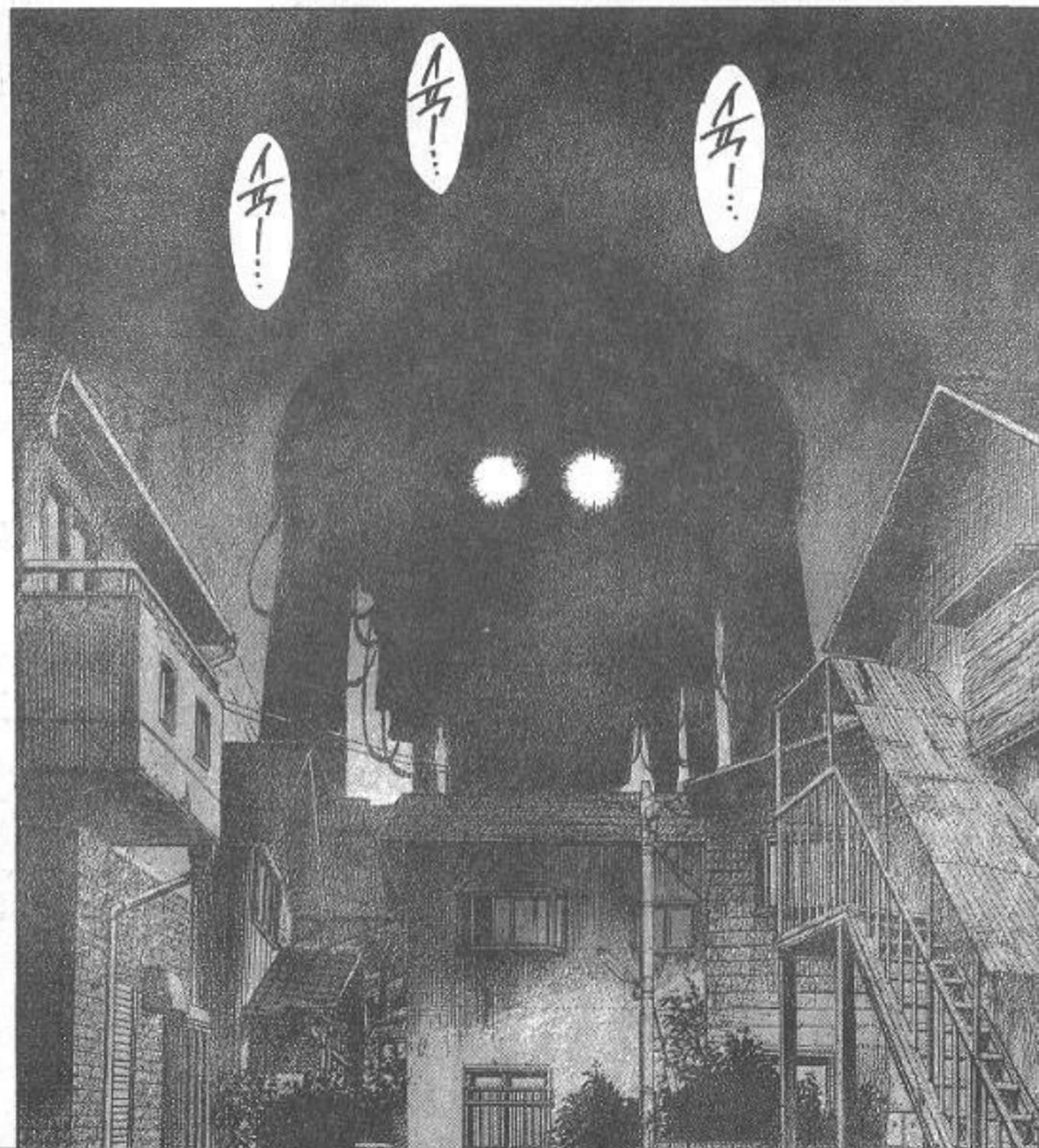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데...
제발 일루
오지나 마라.

엄마.



울지 말고
잠 좀 자라, 칸나야!
좀 전에 우유
먹었잖아.

이애
이애.





응애아애!!

누나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
이제 내가 더 살면
뭐하나!

엄마, 누날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시우.



응애
응애.

요런 갓난쟁이를
떼놓고 가는 심정이
어땠겠어?



느닷없이 돌아와서
이 애를 부탁한다며...
그리고 또 사라지다니.



실례.

애한테
진짜 짜짜 한 번
물려주고 싶지도 않아?!

평생 안 돌아와도 돼,
그 못된 것!



응애 응애!

울지 말래도!
좀 있으면
엄마가
올 거야!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내놨으니까.



그렇게
다 구겨진 걸
꽃으면 뭐해!

알았다,
알았어.



이왕!!

보려면
돈내고 봐!!

엄마!!
그 신문은
파는 물건이라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좀도둑은
잡는 족족
경찰에 넘기라고
엄마가 늘 그랬지?

매상은 개잡아.
나머지 한 개는
어디 갔어?



지-!

그리고 점심 때
매일 다랑어 주먹밥
집어먹었지?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전표에 개수대로
정확하게
적어놨으니까.

안
먹었어.



아들은 도둑으로
몰아붙이지,
딸은 애비도 모르는 자식을
떠맡겨 놓지!

하이고~
내 신세야.



좀도둑?!



엄마가 워낙
고집세고 성깔이
있어서...



아노, 됐습니다.
그리 쉽게 찾아질
리도 없고.

돌아와도 어차피
싸움만 날 텐데...



어서 오슈.

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물려준
술가게를 잃애는 건
절대 안될 일이라고.



이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꾼 게 아직도
불만이거든요.



하긴 합니다.
옛날부터 단골이던
분들만이지만.

3번가
시키시마 씨는?



그러면
술 배달은
더이상 안 하나?



다-

진짜 짜짜!

찾았수?!



경찰입니다.



네?



시대의
조류랄까,
술배달만
갖고는
더이상...

아...
예.



오늘은
다른 일로
온 거지만...

미안히네.
누님의 실종 신고를
냈다고?



여긴 예전에는
술가게였는지?



일가 전원
행방불명?!

소리 좀
낮춰.



최근에
언제 했지?



아아,
그 무슨 대학의
무슨 박사...
배달하죠.

시키시마
씨?



언제 봐도 온 집안에
원지 모를 기계니
도면이 잔뜩 쌓여
있던데, 뭘 하나 몰라?

보자...
한 주일
전인가...



수금을 아직
못했거든요.



큰일났네
...



웬?



아아...
사모님이요.



배달할 때
누가 자네를
맞던가?

...근데,
시키시마 씨가
어떻게요?



뭔가?

아...



뒷문에
빈 맥주병이
두 상자 있던데.

.....



크-
떼억고
도망갔군!



일가 전원이.



없어지다니...
누가요?



시키시마
씨...

저기,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그게...
없어서서
말야...



여자애들이 팬레터를
자꾸 보내서
미치겠다.
볼래?

잘 간직해둬.
왜 불렀나?



뭐냐?
문방구.

술가게가 아니라
편의점이랬잖아.



우리도 지금은
팬시 숍이러구.
여고생들의
사교장!



만 엔이면 되겠지?
케로용이고.



만 엔이면 되잖겠어?
케로용이니까.



케로용이라

국수집 케로용이
결혼하는데
어떻래.
얼마 낼 거야?



하지만
케로용이
장가를
가다니-

아...아,
그거
괜찮네.



저는
용궁원이고.

저는
가리오케.
어때?



잠복을 하려면
역시 팔방이나
우유가 있어야...



글쎄,
모르지...

잠복 수사할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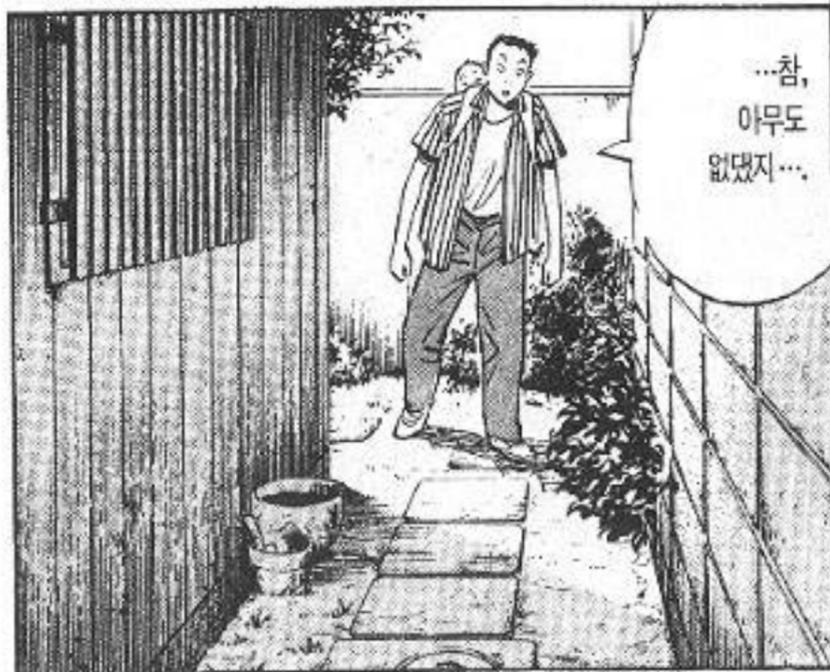
언제라도 저희집을
이용해 주십쇼.
"언제나 왕처럼
모시는 킹 마트"!!



어이,
술가게-!

켄지-!!





...참,
아무도
없었지...



시킴마

계십니까-



부르릉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틈
없어.
나 간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자식 꼬추에다
매직으로 개구리를
그린 적이 있는데.



첫날밤에
신부가
기절초풍 할걸!

아직
남아있는 것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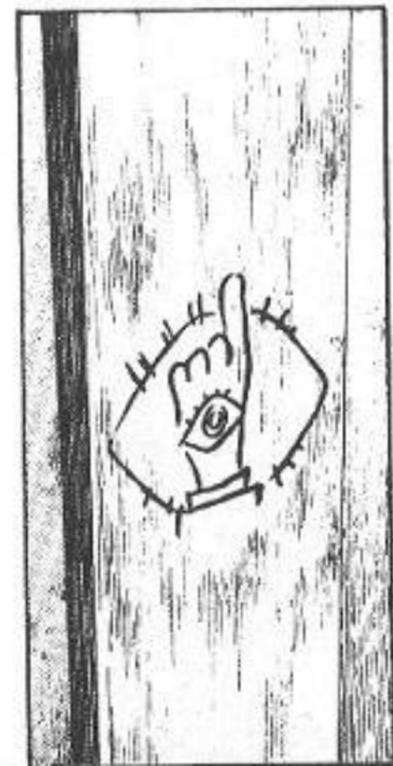
할 수 없지.
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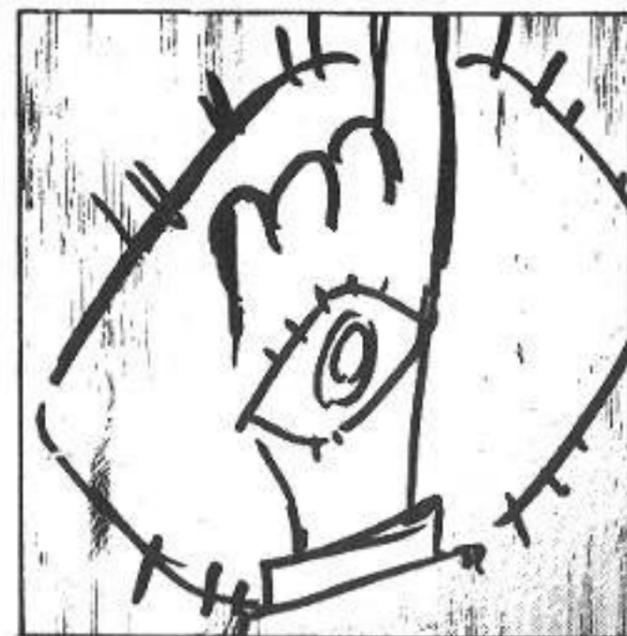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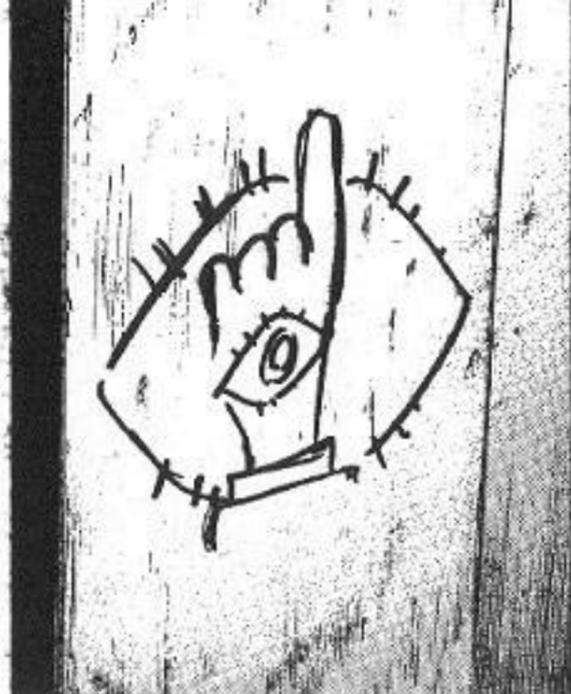
아, 있다.
진짜
다 마셔버렸네.



가리오케라
...



부르릉





애- 저질!

하지 마,
꼬추
딱딱해지잖아
-!!

누드다!!
누드다!!

저녁

그 사람이
나는 좋아~♪

그 사람이
나는 좋아~♪

축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파방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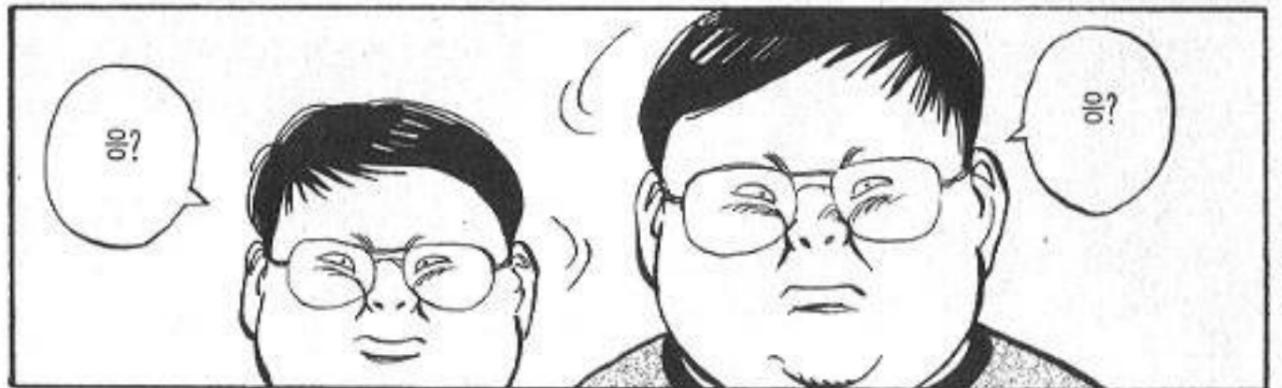
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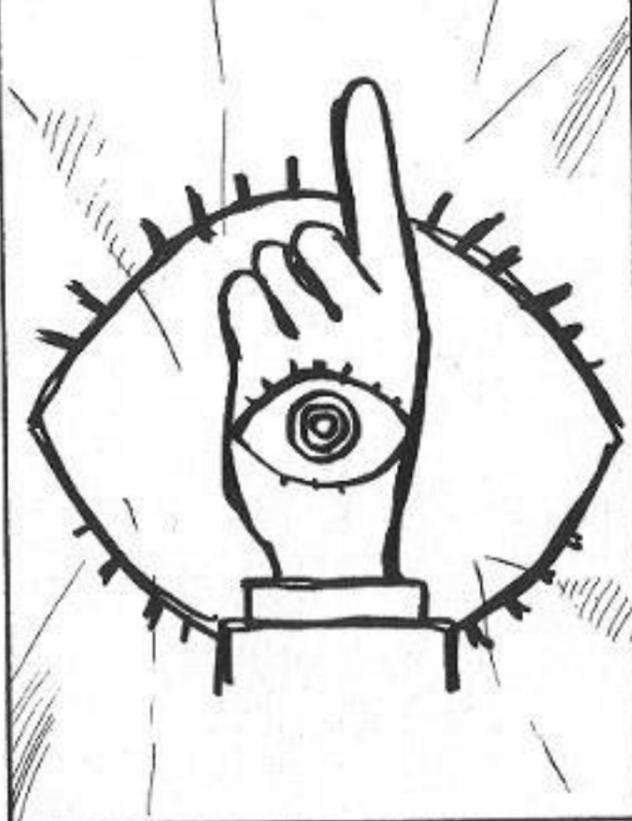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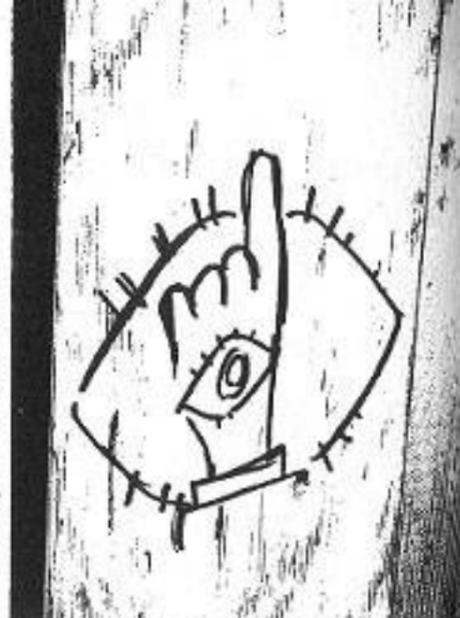
그 놈들이다...

파란 셔츠
입고~♪

파란 셔츠
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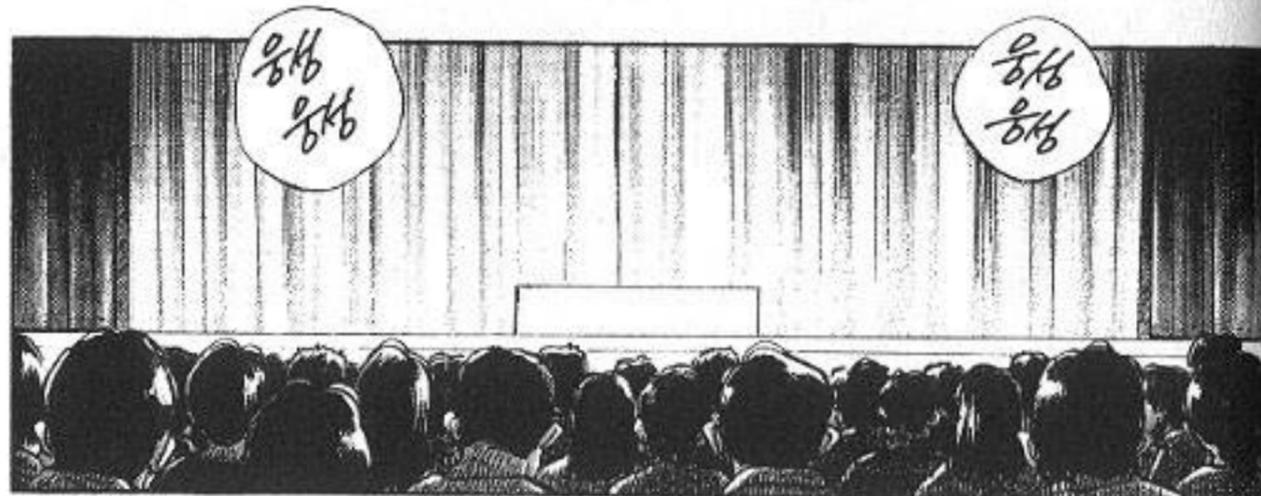




이 표시는
우리가 친구라는
증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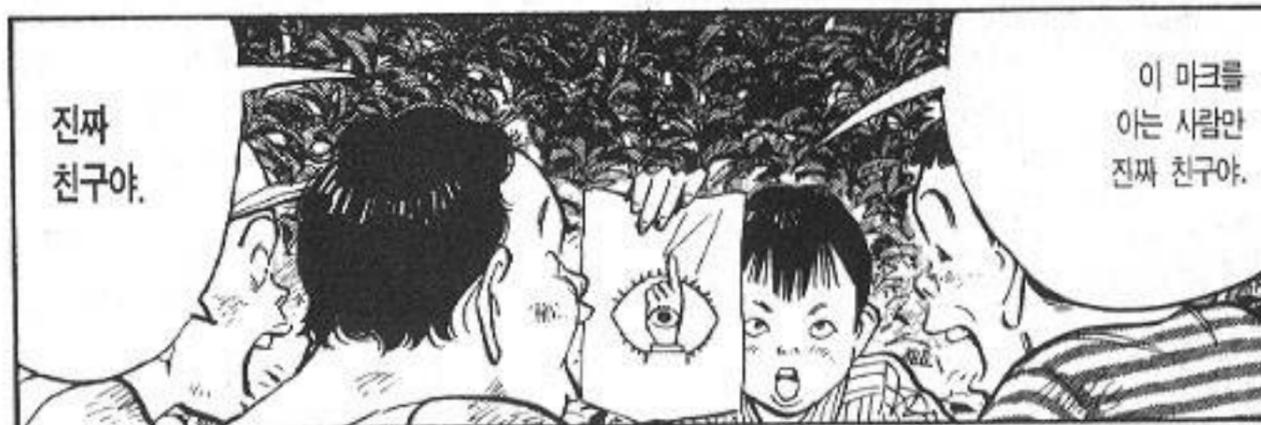


와, 근사하다!!



웅성
웅성

웅성
웅성



진짜
친구야.

이 마크를
아는 사람만
진짜 친구야.



떠오르신대요.



또 "친구"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웅성
웅성웅성

"친구"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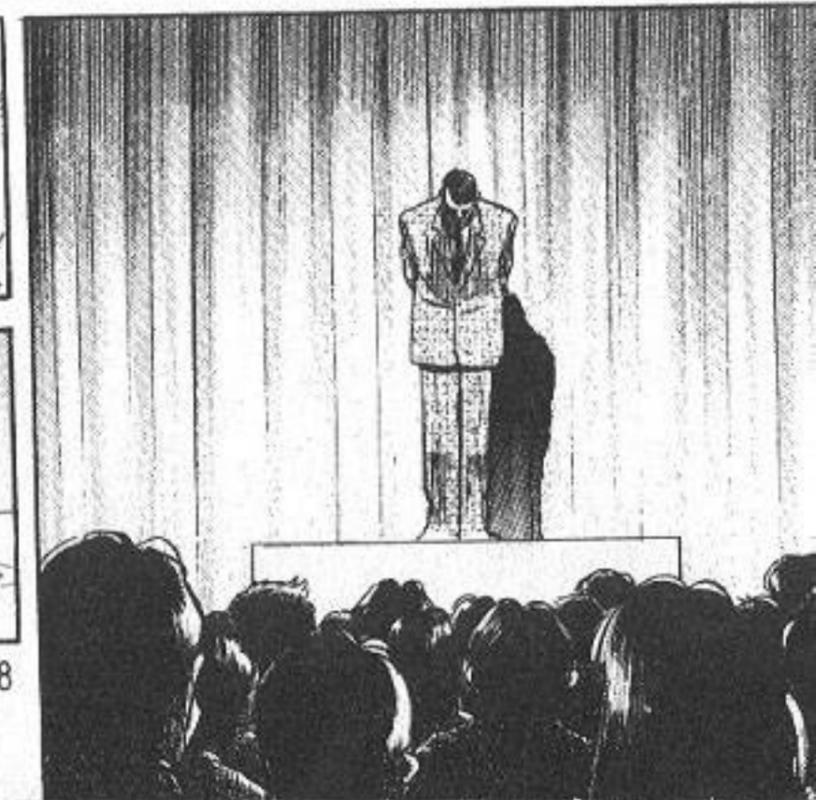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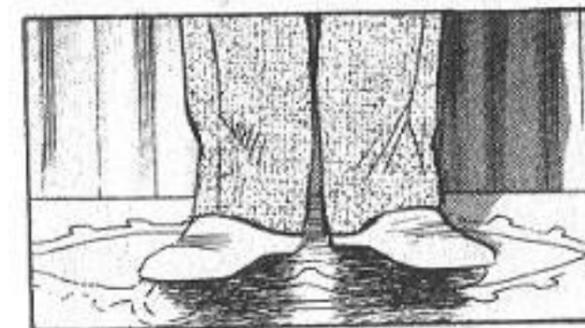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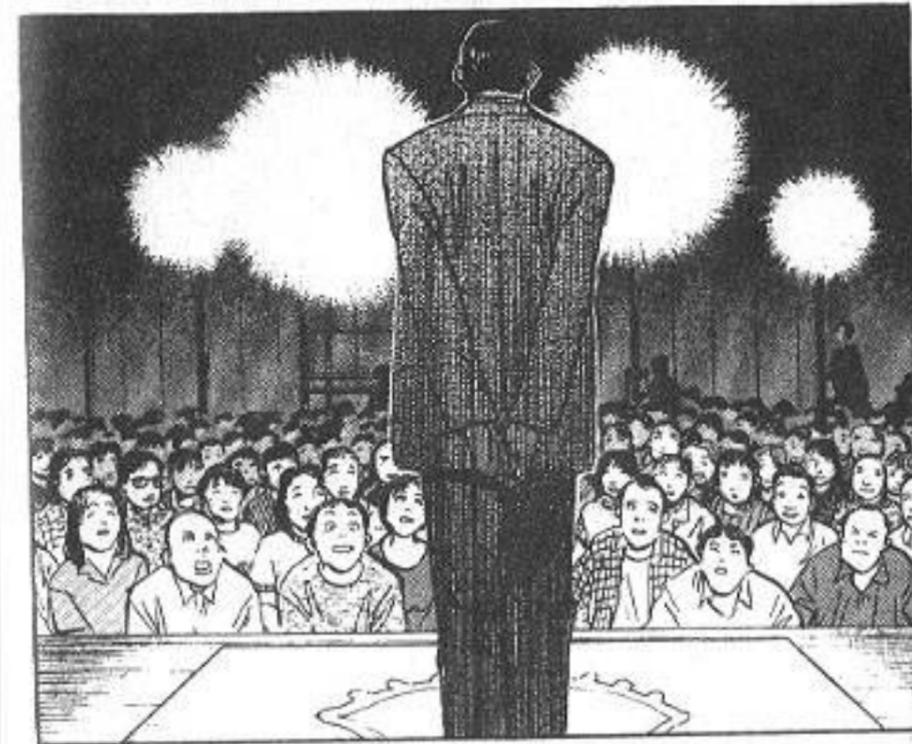
그럼 대체
뭘...?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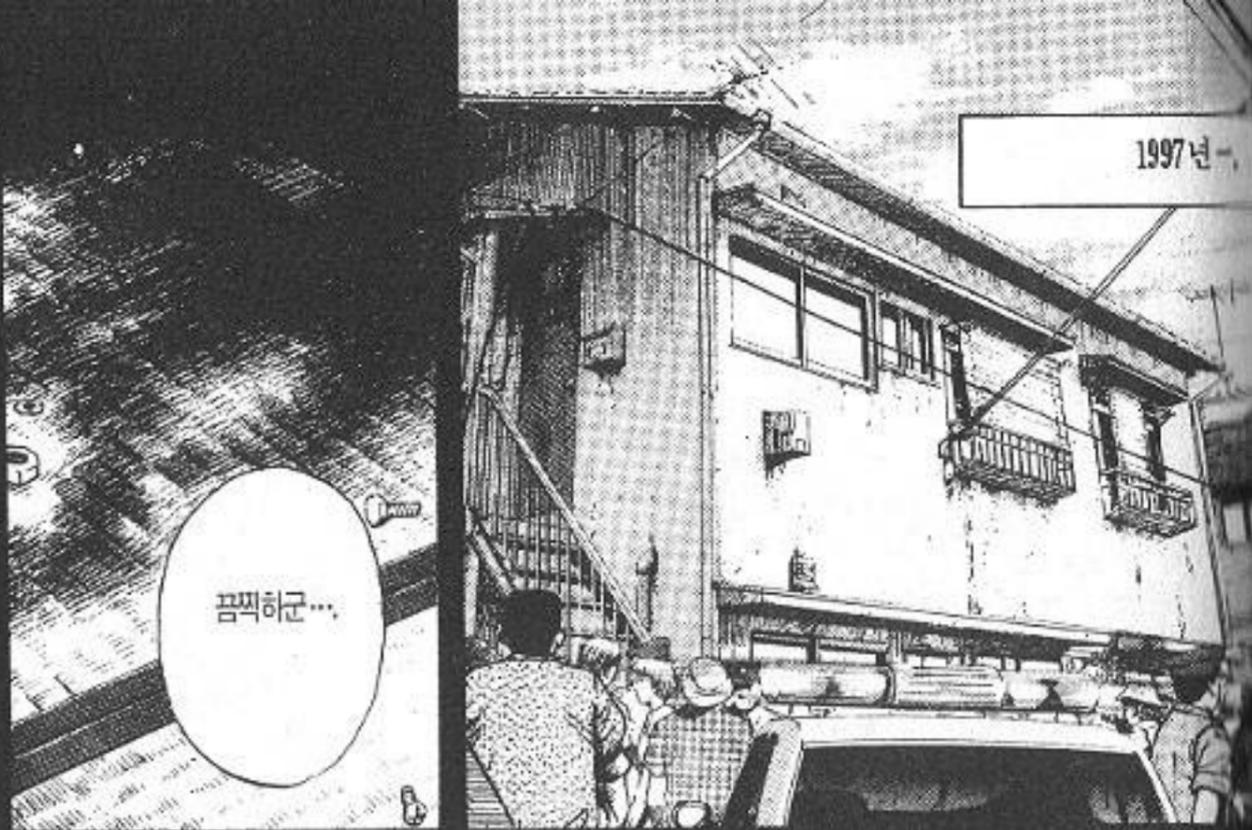
아니, 오늘은
"친구"가 아무 말도
않으신대요.



진짜 친구야.



1997년



끔찍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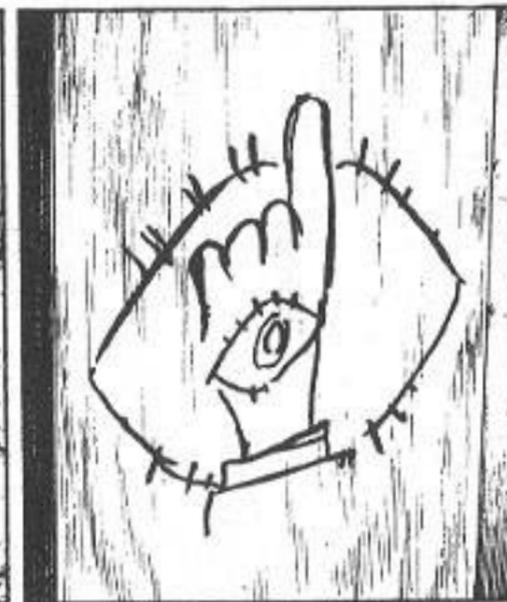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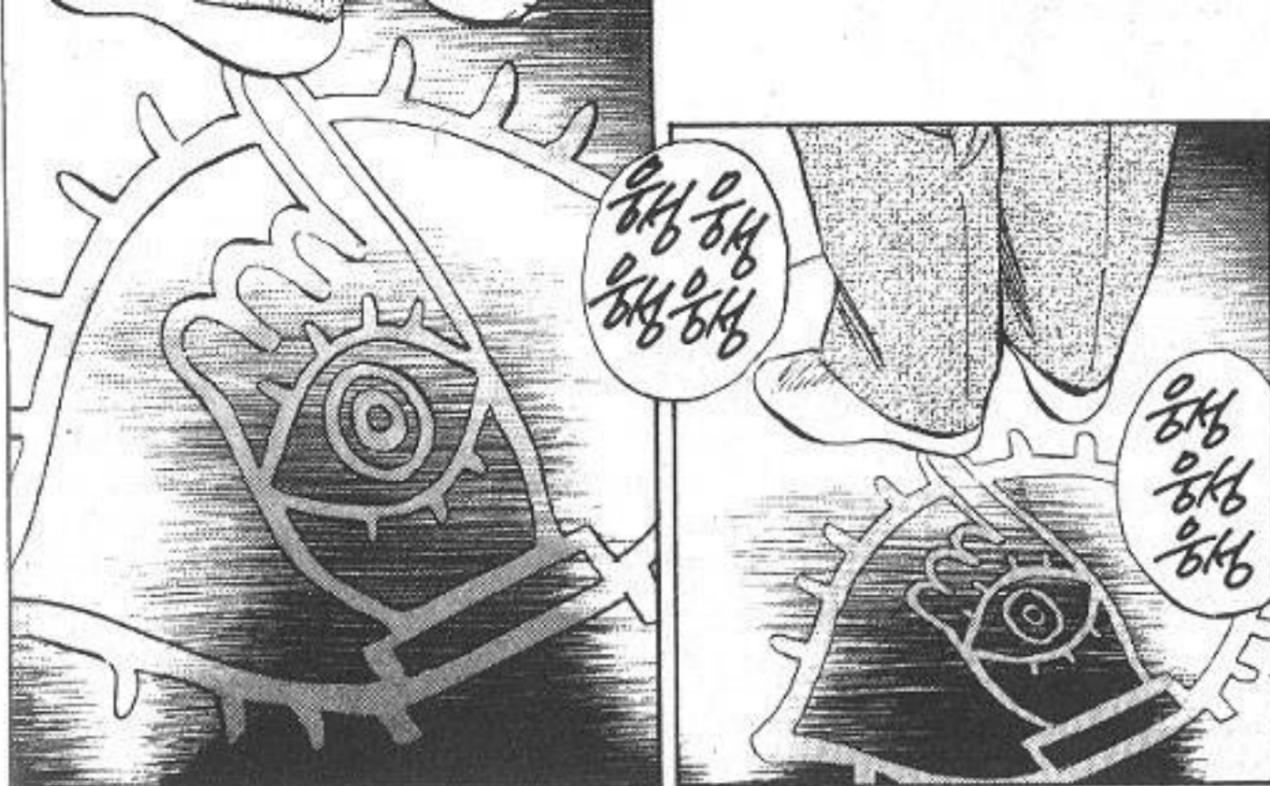


검시 결과를
보기 전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왔어...



이 마크...

뭐였더라...?



그래...

일단
그 대학 쪽을
조사해 볼까요?



오차노미즈
공과대학이라...
상당한 인텔리였군.

꼭 그렇게
머리 좋은 놈들이 이런
괴상한 것만 골라기며
만든다니까.



뭐가요?

온몸의 피가
빠져나오는
전염병 말야!



아프리카지
어딘지에서
...

신문이었나?
TV였나...



뭘
말입니까?

어이...
요즘 들어본 적
없어?



저... 저...
전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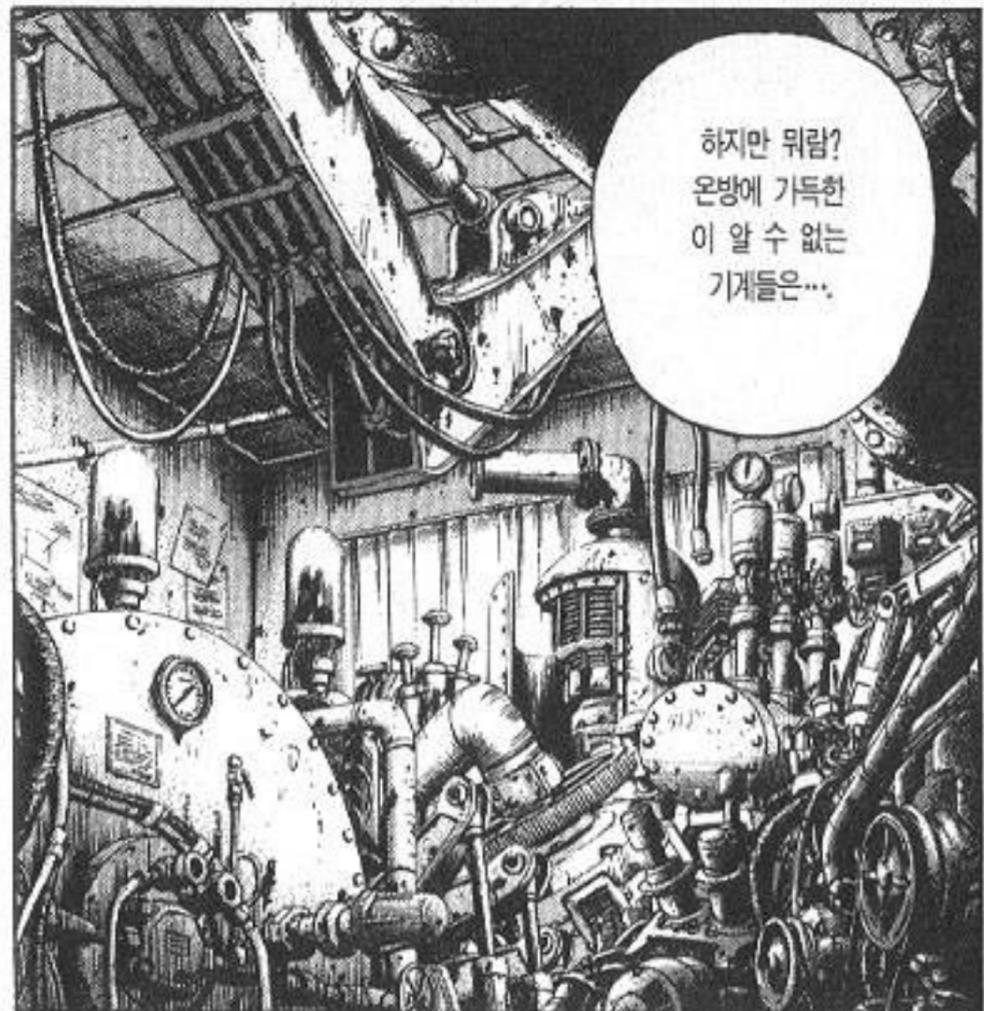
우엑!

이야!



토할 거면
나가서 해!
현장 더럽히지 말고!

우...
우엑!!



하지만 뭐람?
온방에 가득한
이 알 수 없는
기계들은...



조심해.



오차노미즈
공과대학
대학원생입니다.

아...에.
가네다 조타로.
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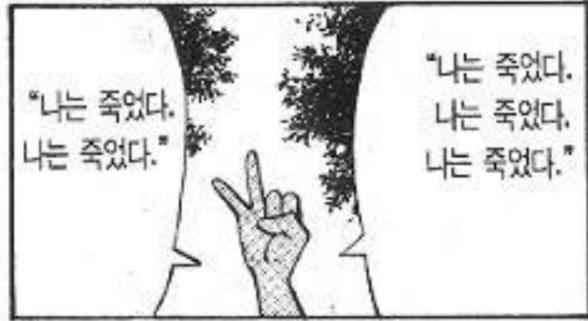


신원은
알았나?

어째
섬뜩하네...













그래...
뭐였더라..

하지만 이 마크...
너도 기억 안나지,
킨?

날쌔다.
켄지 자식,
완전히 알었어.

지금은 다들
이 폴립니다만..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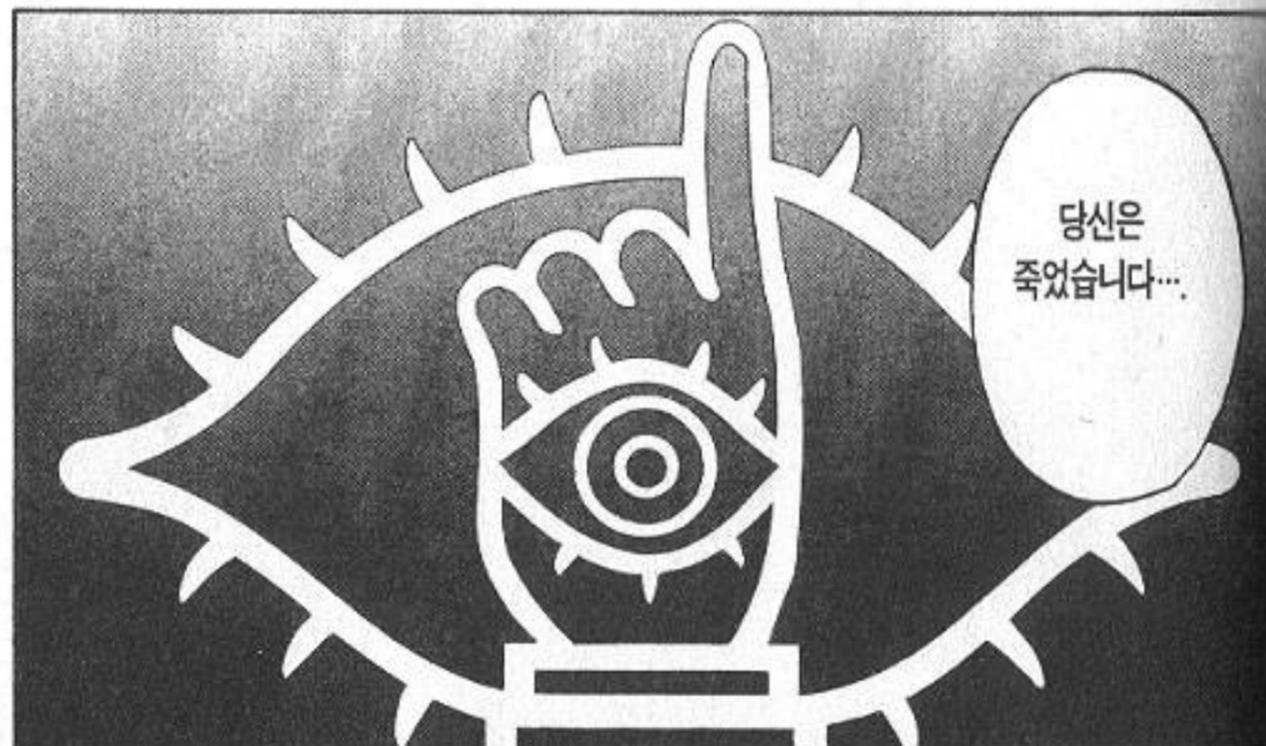
어디서 본 적은
있어.
생각해봐,
마루오.



뭐였더라?
이거...



케로용 군은 최소한
가정의 평화와
우리 동네의 평화 정도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당신은
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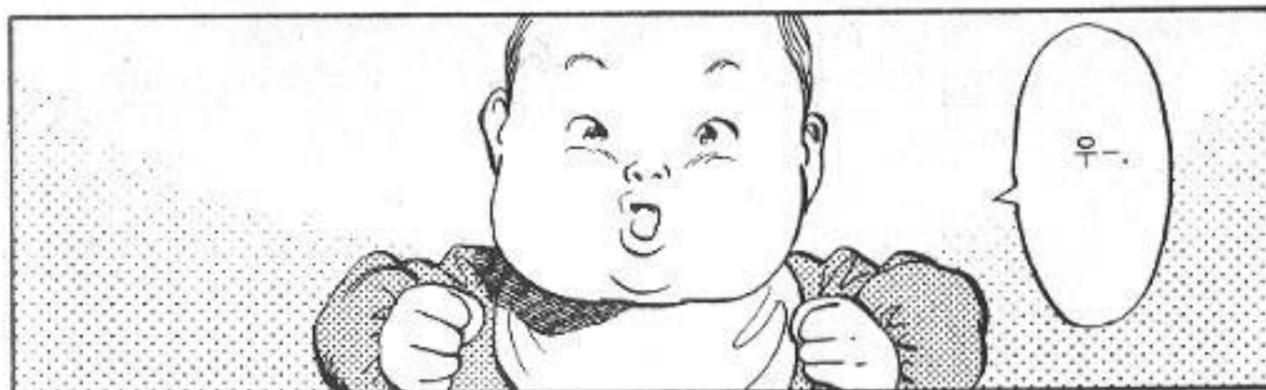


10번 하면
10번 다
맞춘다구요!

눈치 빠른
정도가 아니라,



원지 개,
눈치 하나
빨라요.



우..



우... 우리의
어릴 적
꿈은...



에-
그... 그런
의미에서
또한...



약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아...
빛이...



빛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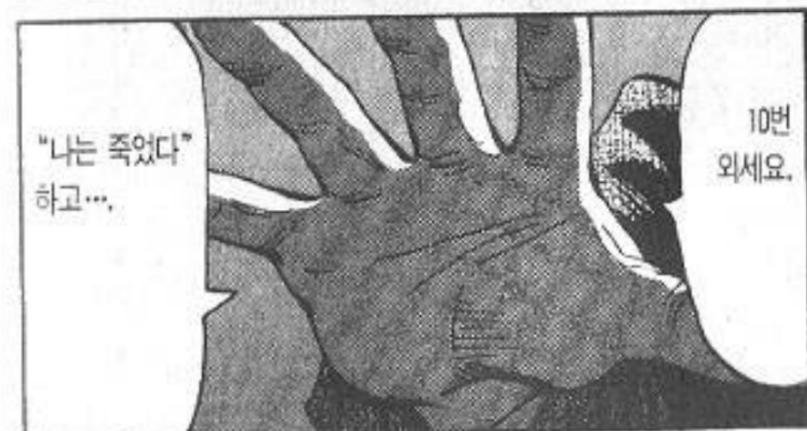
숨
잡으세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구"여...

어?



"나는 죽었다"
하고...

10번
외세요.



아... 예.
알았습니다.
"친구"...



자...
뭐가 보입니까?



"나는 죽었다"
...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것도 시키시마 교수의 수강생이더군요.



하...

오차노미즈 공과대학 학생입니다.



수상하죠...?

어쩐지 수상하군...



자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꿈이었다...

켄지-!
멋져-!

여어, 기다렸다!
술배달-!



안녕하세요, 초 씨.



초 씨는 지금 대학교수 행방불명 사건을 알고 있죠?



여, 아마 아닌가.



오차노미즈 공과대학 시키시마 교수지.

그래.



은몸의 피가 다 빠져 나왔다면?



아아, 괴상하게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제 아오이초에서 일어난 학생 변사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이죠.

네...

공포! 지구 멸망의 날

우와~ 무섭다!!



나는 싸울 거야!

이런 게 세상에 어딴냐?

"외계인의 침공! 무서운 파괴력으로 침략을 개시! 인류는 전멸한다!"



북극의 얼음이 그렇게 쉽게 녹나?

아무튼 나는 싸울 거야!

얼음 같은 건 금방 녹아. 여름에 봐라...



이... 이젠 정말일지도...

"태양의 이상 폭발로 지구가 초고온화 한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지상은 완전히 바다 밑에 잠기고, 인류는 사멸한다!"



가라오케는 절대 안 불렀다...



에이!!

스탑 더 시즌 인더 선-♪



내 인생은 이걸로...

이러면 될 거다...

그 권으로 모든

이것이 지구

거대 운석의 충돌

운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거대운석의 충돌로
지구의 자전축이
틀어져 인류는
최후를 맞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싸울 거야!

제3화 기타를 산 소년

구멸망의 날이다!

“미소 전쟁이 확대되어
제3차 세계대전에 돌입!!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터지고
지구는 죽음의 재로
뒤덮여 인류는
전멸한다!!”

제3차 세계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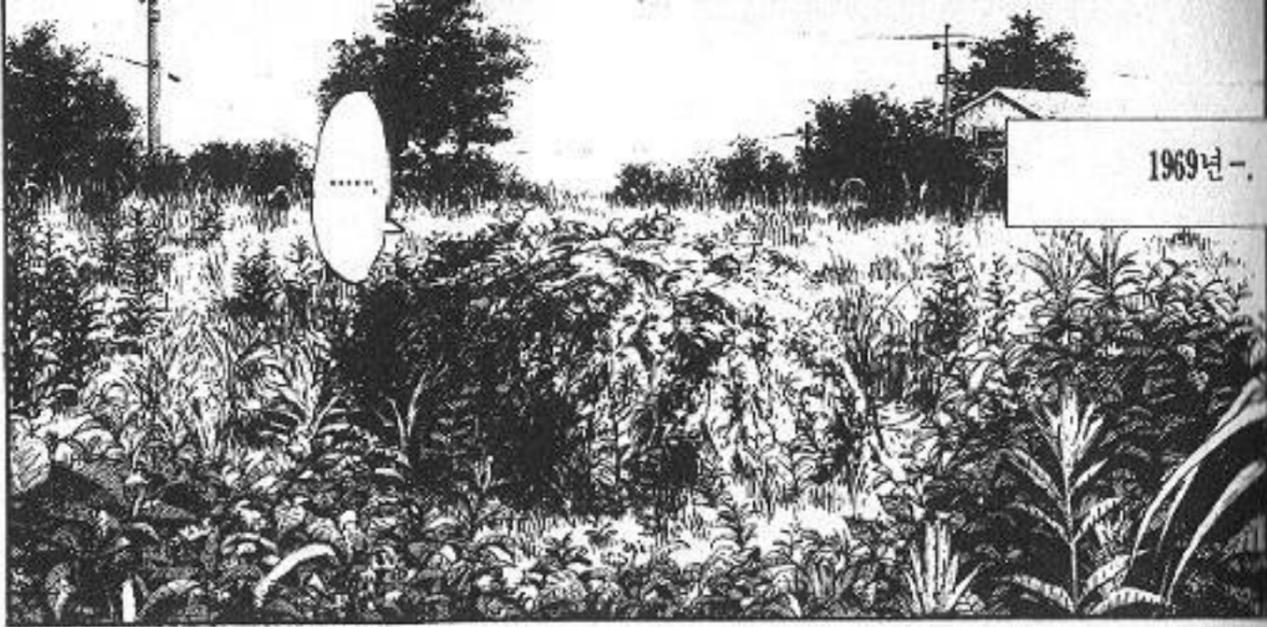
미·소 전쟁이 일어나 제3차
돌입, 원자폭탄, 수소폭탄
대중적 발발 지구 전체
뒤덮여 모든 인류는

자... 진짜
큰일났잖아!

나는
싸운다니까!!

대기오염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공기는 점점 오염되어 간다. 지구는 유독가스로
대량이고 무서운 질병병이 전세계에 퍼진다.
많은 고층이 음주하여 멸망한다.



1969년 -



원자폭탄에
운석을 상대로...

싸우다니...
어떻게 싸울 건데,
켄지?!

왜...
왜 그래?



Stay
tune !!

안 그래,
오초?!

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어른이 되면
...

그...
그야
뭐!

싸...
싸워야지!

그...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말야!



로큰롤
이야

사랑과
평화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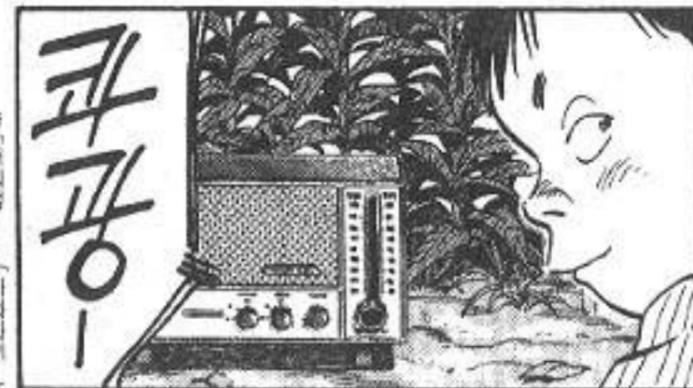
음악제에
50만 명이러니
...

잘은
모르지만
...



내가
먼저야!

「소년
매거진」이나
읽지.



콧
풍!



「애니멀 1」에
나왔던 적의
필살기야!

롤링
스톤즈라면
아는데.



자
자
강
강

롤링
스톤즈야.

괴상한
음악이네.



펜인지
연필인지 몰라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

「출발! 가요」
틀어줘.
그룹사운드 좀
듣자!

...This is
Far East
Network.



너 또
영어 라디오
듣냐?

*펜이야.
FEN.

We're gonna
keep on.....



올여름에
미국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날대.

나카무라
형이
그랬어.



나카무라 형도
뭔지 모르고
듣는 거겠지.

옆집
나카무라 형이
맨날 FEN을
듣더라구.



음악제에
그렇게 모여서
뭐하는데?
매스게임 하나?

5...
50만 명?!

아나!



뭔데?
굉장한
일이라니...



음악제에
50만명이
모일 거래.

* 「소년 매거진」 (가오신씨, 노영환 & 가오신씨, 노영환) 외. 「롤링 스톤즈」의 「애니멀 1」에 나왔던 적의 필살기야! * 「애니멀 1」에 나왔던 적의 필살기야! * 「애니멀 1」에 나왔던 적의 필살기야!

